

19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삶*

- 제주도 대정현 사례 -

김건태**

목 차

1. 머리말
2. 18세기 공노비
3. 19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직역
4. 20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토지소유
5. 맺음말

국문초록

18세기 후반 제주도 대정현 5개 마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주민의 계층은 幼學類(1계층), 校生類 및 武科關聯(2계층), 軍官職・假率・鄉吏職 등(3계층), 下級胥吏・官廳直・軍兵・下層良人(4계층), 奴(5계층)로 구성되었다. 주민 가운데 公奴婢가 50% 이상 차지하는 마을도 있었다.

하모슬리와 사계리 남성의 계층구조는 18세기 후반~20세기 초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세기 두 마을에 살던 사람들과 조상의 계층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1계층이라 해서 후손이 조상의 계층을 자동으로 세습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상보다 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후손도 적지 않았다. 2계층 또한 후손이 조상의 직역을 자동으로 세습하는 것은 아니었다. 2계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층에서도 조상보다 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후손이 적지 않았다. 3계층 앞에는 튼튼하고, 높이 올라가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늘 놓여있었다. 3계층은 19세기 들어 대체로 조상의 직역을 세습하는 사람보다 조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후손들이 많았다. 4계층 또한 19세기 들어 대체로 조상의 직역을 세습하는 사람보다 조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후손들이 많았다. 5계층 후손 또한 19세기 들어 계층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조상들의 계층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2·3·4·5계층 후손들의 평균 지위가 20세기 초까지 끝내 역전되지 않았다.

1918년 두 마을 주민 또한 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두 마을 주민의 토지소유 규모 또한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戶당 토지소유규모의 多寡는 18세기 조상이 가졌던 계층의 高下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계층 후손의 토지가 가장 많고, 5계층 후손의 토지가 가장 적다. 하지만 1인당 토지소유규모의 多寡는 18세기 조상이 가졌던 계층의 高下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호당 토지 소유규모는 조상이 호적에 출현하는 시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18세기에 출현한 가계의 후손들이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했고, 20세기에 출현 가계의 후손들이 가장 적은 토지를 소유했다.

주제어 : 公奴婢, 하모슬리, 사계리, 계층구조, 토지소유

1. 머리말

조선시기에는 노비도 능력만 있으면 재산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다.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만큼 전세, 요역 등과 같은 부세도 부담해야 했다. 노비들은 상민이 입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실생활에서 상민과 노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민과 노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제주도에서 그랬다. 李綱會(1789~?)가 남긴 『耽羅職方說』은 노비를 바라보는 19세기 전반 제주민들의 인식을 생생히 전한다. 제주도에서는 “부유한 양민 여

자라도 혹 桑間했다는 말이 한 마디라도 밖으로 퍼져나가면 곧 官婢로 충당되고, 이를 九族이 모두 부끄러워했다. 그런 까닭에 집을 팔고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관비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¹⁾ 이렇듯 노비들의 가장 큰 희망은 免賤, 곧 해방이었다. 조선사회는 그들의 소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공노비 해방령은 1801년, 사노비 해방령은 1894년에 가서야 비로소 내려졌다.

해방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노비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18세기 무렵부터 노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조선후기 私奴婢들은 주인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친 다음 양인[상민]으로 살아갔다. 적지 않은 사노비들은 軍籍에 이름을 올리고서 국가의 힘에 기대어 양인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 사노비들은 상전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면천을 허락받기도 했다.

그 동안의 연구로 노비와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지만²⁾ 노비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사람과 그 후손들의 생활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백승중은 17~18세기 단성현 호적을 활용하여 사노와 그 후손들의 생활을 추적하였다.³⁾ 그에 따르면 17세기 말 단성현 도산면에 거주하던 어느 私奴의 후손 다수가 18세기 단성 호적에서 확인된다. 18세기 후손들이 살아가던 모습은 다양했다. 일부는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여전히 노비로 살아가고, 일부는 常民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같이 18세기 말까지도 후손 가운데 그 누구도 양반이 되지 못했다.

권내현은 17~19세기 단성현 호적을 분석하여 노비와 그 후손들의 삶을 조명하였다.⁴⁾ 그에 따르면 17세기 말 단성현 도산면 고읍

1) 『耽羅職方說』「相贊契始末」, “良民富實之女 或有桑間之事 一言外播 已充官婢 則九族咸羞 故不計破家蕩產 期於圖免”

2) 다음 글에서 사노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대략을 살필 수 있다. 全炯澤,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34, 1996; 全炯澤, 「한국奴婢의 존재형태」, 『노비·농노·노예』 역사학회 편, 일조각, 1998; 李榮薰, 「한국사에 있어서奴婢制의 추이와 성격」, 위의 책, 1998.

3) 白承鍾, 「慶尙道 丹城縣 都山面 文太里의 私奴 興宗과 興龍 一家」, 『震檀學報』 70, 1990.

대촌에 거주하던 어느 사노의 후손 다수가 18~19세기 단성현 호적에 출현한다.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우여곡절 끝에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幼學을 칭하게 된다. 비록 높은 직역을 획득했지만 단성 고을에서 양반으로 대접받지는 못했다. 19세기 말까지도 그들은 동성촌락도 형성하지 못했고, 지체 높은 양반과 사돈도 맺지 못했고, 학문적 업적도 쌓지 못했던 것이다.

사노비와 달리 관노비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공노비 제도의 정비과정과 그 특성,⁵⁾ 그리고 조선후기 공노비의 토지소유 실상, 공노비의 혁파론의 실상, 관노비의 입역체제 등⁶⁾이 밝혀졌다. 하지만 1801년 공노비 해방령이 내려진 이후 공노비에서 양인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과 그 후손의 삶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후기 노비제, 나아가 조선 시기 신분제에 관한 이해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공노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기서는 18세기 제주도 대정현 5개 마을에 거주하던 공노비와 양인의 삶, 그리고 19세기~20세기 초에 걸친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 전체를 시야에 넣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분상승에 성공한 부류뿐만 아니라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함께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노비 후손들의 삶과 양인 후손들의 삶을 비교할 수 있다. 이같이 마을의 장기동태를 살피는 연구는 조선후기 신분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4.

5) 池承鎭,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6)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2. 18세기 공노비

1) 자료

여기서는 제주도 서남쪽 대정현에 위치한 일파리, 하모슬리, 사계리, 중문리, 동성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정현 읍치였던 동성리는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다른 4마을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5개 마을에는 공노비가 실려 있는 18세기 호적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일파리 호적 : 1771~1798년

하모슬리 호적 : 1765년, 1771~1798년

사계리 호적 : 1795년

중문리 호적 : 1786년 1798년

동성리 호적 : 1771년, 1777년, 1780년, 1783년, 1789년, 1798년⁷⁾

이들 마을에는 20세기 초까지도 공노비 후손들이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모슬리와 사계리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눈여겨보고자 한다. 그 두 마을에는 19세기~20세기 초에 작성된 호적뿐만 아니라 일제시기에 작성된 자료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마을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하모슬리 : 1801년~1907년 호적(1897년 결락), 1912·1915·1923년 民籍, 1918년 地稅名寄帳⁸⁾

사계리 : 1807~1908년 호적(1897년 결락), 1921년, 1918년 地稅名寄帳⁹⁾

7) 일파리, 하모슬리, 중문리, 동성리 호적은 마을회관 소장본. 사계리 호적은 金東桂,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에 정리된 내용. 이들 호적 일부(1786년 동성리, 1786년 중문리, 1795년 사계리 호적)와 1789년 自丹里 호적에 등재된 공노비는 김동전,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역사민속학』 24, 2007에서 분석되었다.

8) 호적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영인본, 民籍과 地稅名寄帳은 마을회관 보관본.

9) 호적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영인본, 民籍과 地稅名寄帳은 마을회관 보관본.

이같이 하모슬리와 사계리에는 가족복원법을 활용하여 공노비와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남아있다.

여기서는 현존하는 호적을 연대순으로 연결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개인번호[ID]와 가계번호[ID]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복원하였다. 개인번호는 호적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마다 새 번호를 부여했다. 1765~1907년 하모슬리 호적에는 연인원 39,020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부여된 개인번호는 5,199번(여자 3,257, 남자 1,942)까지였다. 1795~1908년 사계리 호적에는 연인원 28,830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부여된 개인번호는 3,531번(여자, 2,238, 남자 1,293)까지였다.

가계번호는 호적에 처음 등장하는 주호를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하모슬리의 경우 1765년 호적에 102호가 등재되었으므로, 이 해의 가계는 102개가 된다. 이후 연도 호적에서 1765년 호적에 등재된 사람의 후손이 등장하면 조상의 가계번호를 계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전 호적에서 조상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출현하면 새 가계번호를 부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계번호를 부여한 결과 하모슬리는 1907년 호적까지 451가계가 등장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을 사계리에 적용한 결과 그 곳에는 1908년 호적까지 126가계가 등장했다.

2) 공노비들의 삶

18세기 후반 제주도에서는 공노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림 1> 참조) 이 시기 제주도에서 인구이동, 즉 노비도망이 활발하지 않았음을¹⁰⁾ 감안하면 감소추이는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정부의 납속정책이 공노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성리에 거주하던 趙完璠은 납속

10) 김건태, 「조선 후기 호구정책과 문중형성의 관계 - 제주도 대정현 하모리 사례 -」, 『한국문화』 67,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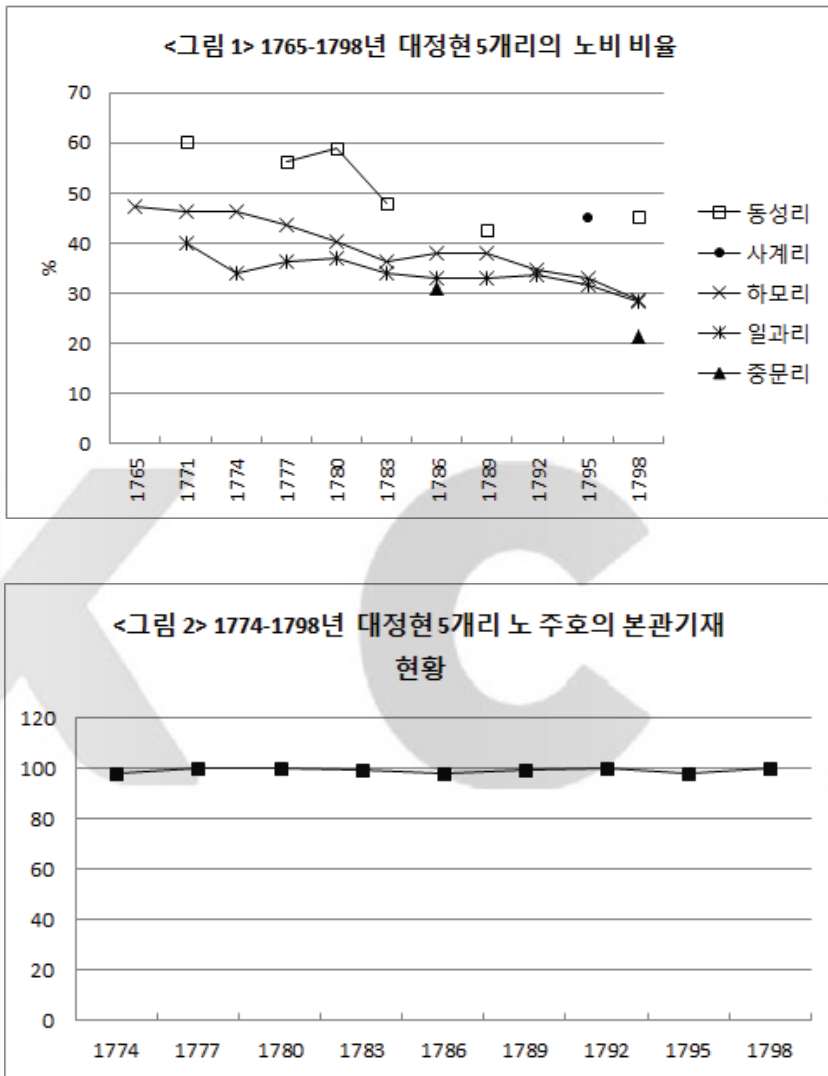
을 통해 공노에서 양인으로 되었다. 1780년까지 奉常寺奴였던 그는, 그 후 納贖[納才]을 통해 1783년에는 將官이 되었다. 그런데 1783년까지는 公奴의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했다. 즉 그는 1783년 호적에 “巡撫時 納才免賤 時將官”으로 올라있다. 하지만 꼬리표는 얼마가지 않아 떨어졌다. 그는 1789년 호적에 ‘前城將’으로 올랐다.¹¹⁾ 18세기 후반 들어 거세게 불어 닥친 공노비 감소 추세가 1801년 공노비 해방령을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 가운데 공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을마다 조금씩 달랐다. 동성리는 여타 마을에 비해 공노비 비율이 더 높은 마을이었다. 동성리는 읍치였기 때문에 관노비가 거주하였고, 그들이 공노비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¹²⁾ 한편 중문리는 여타 다른 마을에 비해 공노비 비율이 낮았던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동성리를 제외한 4개 마을은 자연환경이나 행정적 위상이 비슷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중문리의 공노비 비율이 더 낮았을까? 주민 구성이 그러한 현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문리는 여타 4개 마을에 비해 幼學의 비율이 높았다. 1798년 중문리 남성 219명 중 19명(전체의 8.7%)이 유학을 칭하였다. 비슷한 시기 여타 4개리의 유학 비율은 3.7%~1.1%였다.¹³⁾ 공노비들은 굳이 힘 있는 사람 주변을 서성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된 『耽羅職方說』이 전하는 제주도 풍습으로 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은 공노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동정 어린 구원의 손길을 보내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멸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11) 1780년 東城里 五統 第二戶 弼盛代子奉常寺奴書員趙完璠年二十; 1783년 東城里 五統 第五戶 巡撫時納才免賤時將官趙完璠年二十三; 1789년 東城里 五統 第二戶 前城將趙完璠年二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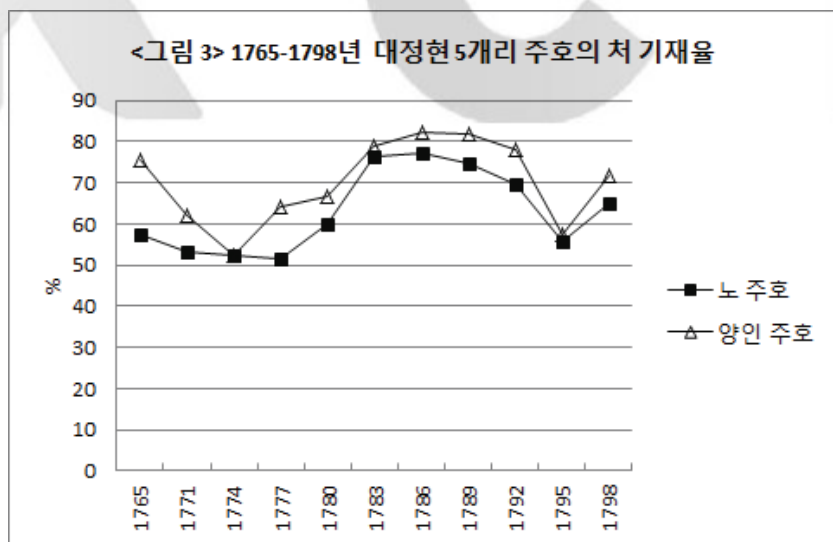
12) 1771년 동성리 호적에는 352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명(전체의 5.7%)이 官奴婢였다.

13) 1795년 사계리 109명 중 4명(전체의 3.7%). 1798년 동성리 229명 중 5명(전체의 2.2%), 1798년 하모슬리 157명 중 2명(전체의 1.3%), 1798년 일과리 274명 중 3명(전체의 1.1%).



공노비들은 생활공간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제주도 호적에 등재된 공노는 ‘奴’字를 제외하면 호적 기재 내용에서 양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5개리 호적에 등재된 公奴 주호 가운데 성이 없는 자는 1789년 호적에서 단 1명 확인될 뿐이다. 그는

1789년 하모슬리 호적에 등장하는 內贍寺奴 時積이었다. 그런데 그도 1795년 호적에 金時積으로 등재된다.¹⁴⁾ 5개리 호적에 등재된 公奴 주호 대부분은 본관도 갖추고 있었다.(<그림 2>) 일부 公奴들은 양인 상층과 동일한 본관을 가졌다. 예컨대, 1789년 동성리 호적에는 ‘濟州高’를 본관으로 쓰는 남성주호가 8명 등장하는데, 그 중 2명은 儒生이었고 2명은 公奴였다. 공노비 대부분이 성과 본관을 갖는 풍습은 꽤 일찍부터 정착된 듯하다. 예컨대, 1708년 울산 부 부내면 호적에 주호로 등재된 공노 139명 가운데 112명(전체의 80.6%)이 성과 본을 가졌고, 138명은 본관을 갖추었다. 姓貫을 기준으로 보면 공노비는 양인과 사노비의 중간에 위치했다. 18세기 들어 성관을 갖는 사노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18세기 말까지도 사노비들이 성관을 갖는 풍습은 굳건하게 정착되지 못했다.¹⁵⁾ 예컨대, 1789년 단성현 호적에 주호로 등재된 私奴 154명 가운데 성과 본을 모두 갖춘 자는 75명(전체의 48.7%). 성만 갖춘 자



14) 1792년 하모슬리 호적은 모든 주호의 본관을 생략했다.

15) 김경란, 「조선후기 無姓層의 有姓化 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2008.

15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그림 4> 참조) 왕실 관련 기관(內資寺, 內贍寺, 仁順府, 禮賓寺, 典醫監, 司宰監, 司贍寺, 大君房, 宗親府)에 소속된 노비가 많았는데, 그들은 전체의 85.8%를 점했다. 특히 內贍寺, 仁順府, 內資寺 소속 노비가 많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왕실 관련 기관들은 공노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노비들끼리 자유롭게 결혼하였다. 예컨대, 동성리 호적에 등재된 公奴 주호 가운데 公婢와 결혼한 자는 70명이며, 그 가운데 64명이 소속기관이 다른 公婢를 부인으로 맞았다. 이같이 소속처가 다른 공노비가 결혼할 경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가 소속된 기관에 속하였다.

공노비들은 양인과 결혼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良女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公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림 5> 참조) 18세기 제주도에는 신분내혼 풍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문화는 공노비를 매우 천하게 여기는 습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인들이 공노를 사위로 맞아들이기를 매우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公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양친교혼에 성공하였다. 결혼에 성공한 후에는 큰 보상이 뒤따랐다. 자식들이 꿈에 그리던 양인이 된 것이다. 양친교혼을 한 公奴 대부분은 모든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양친교혼에 성공한 內需司奴 李地發은 자식 4명(3녀 1남)을 모두 양인으로 호적에 등재했다.¹⁸⁾ 공노가 양친교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자식이 양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자식은 공노가 되기도 했다. 양녀를 부인으로 맞은 內贍寺奴 鄭萬柵은 딸 2명은 양녀로, 아들 1명은 내섬시노로 호적에 올렸다.¹⁹⁾ 그런데 公奴가 양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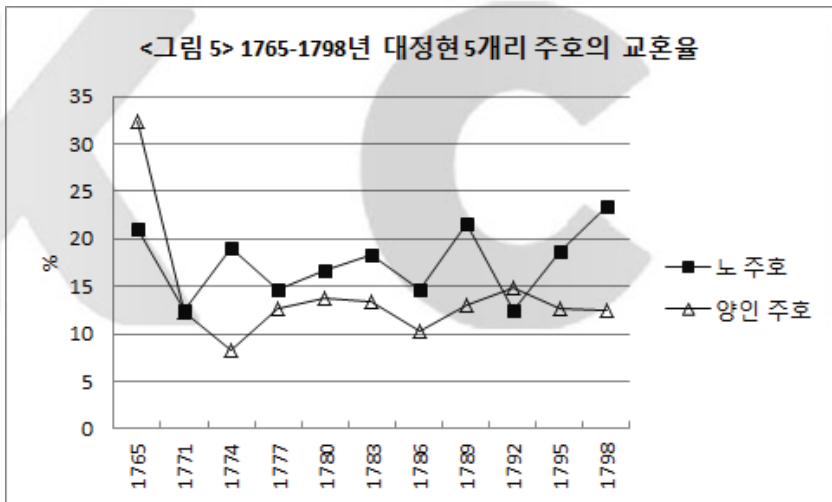
寺奴毛瑟所書記金完己年五十八. 이런 경우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속처를 판단하였다.

18) 1774년 일과리 호적, 7통 1호.

19) 1774년 일과리 호적, 18통 1호.

부인으로 맞아 낳은 자식이 공노비로 되는 경우는 5개리 호적에서 위 사례가 유일하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제주도에는 노비종모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公奴뿐만 아니라 公婢도 양인에게 시집가기 어려웠다.(<그림 5> 참조) 당시에는 노비종모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제주도에서는 어머니가 婢이면 아버지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식들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 예컨대, 內需司婢를 부인으로 맞은 忠翊衛 金取澤은 자식 3명(딸 둘, 아들 하나)을 모두 내수사노비로 호적에 올려야 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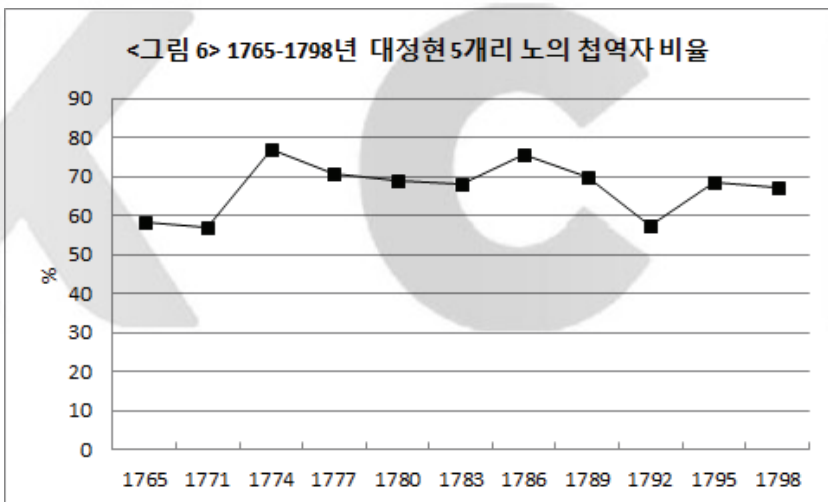


조선후기 대부분의 공노비는 소속처에 身貢을 상납하는 納貢奴婢였다. 정부는 1755년 신공으로 연간 奴는 면포 한 필, 婢는 半疋로 감액했다가 1774년에는 婢의 신공을 폐지했다.²¹⁾ 하지만 제주도 公婢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공을 상납했다. 정부는 1790년

20) 1774년 일과리 호적, 3통 3호.

21) 全炯澤, 앞의 책.

대까지도 제주도 公奴로부터 米 1두, 公婢로부터 米0.5두를 신공으로 수취하였다.²²⁾ 한편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米가 극히 소량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곳 공노비들은 신공으로 米 대신 특산물을 상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조선후기 제주도 주민들이 진상하던 結弓, 獐皮, 각종 해산물, 꿀, 약재류 등과²³⁾ 비슷한 물품을 신공으로 상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제주도 호적은 공노비들이 상납하던 신공 가운데 각종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鮑作을 직역으로 가진 公奴들이 가끔 보이는데,²⁴⁾ 그들은 어부였다.²⁵⁾



제주도 공노비들은 자신의 소속처에 신공을 상납할 뿐만 아니라 양인들이 지던 役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內贍寺奴였던 梁永白은 毛瑟防軍이기도 했다.²⁶⁾ 18세기 후반 제주도 公奴의

22) 김동전, 앞의 글.

23) 朴贊植,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耽羅文化』, 16,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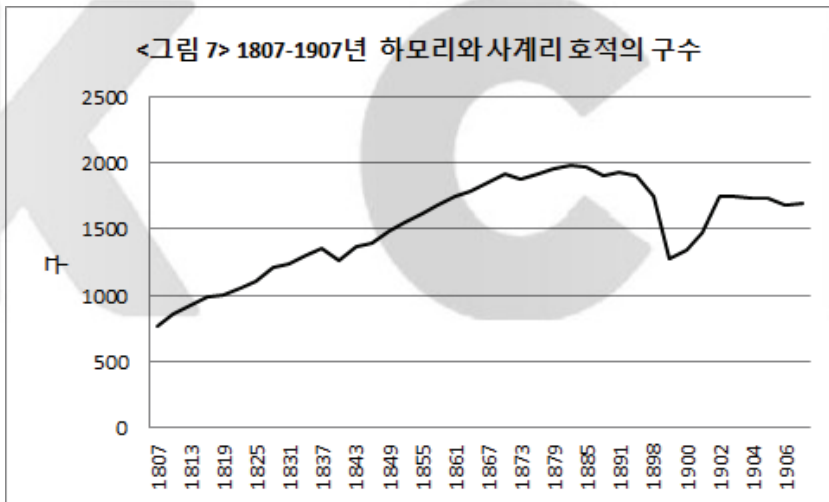
24)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耽羅文化』 33, 2008.

25)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형태」, 『耽羅文化』 32, 2008.

70% 정도가 양영백과 같은 첩역자였다.(<그림 6> 참조) 이같은 첩역자 비율은 비슷한 시기 단성현 상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1786년 단성현 奴 가운데 첩역을 진 사람의 비율은 13.6%이다.²⁶⁾ 제주도 공노들이 매우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耽羅職方說』에서 보듯이 제주도 사람들을 공노비를 매우 천하게 여겼던 것이다.

3. 19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직역

1) 제주도 호구정책의 특성



두 마을 호적에 등재된 인구는 19세기 후반까지 가파르게 증가한다.(<그림 7> 참조)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들어 정부가 제주도 호구를 매우 적극적으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사계리 사례를 통

26) 『1766年 下毛里統籍』“1統1戶 內瞻寺奴 毛瑟防軍 梁永白 年四十五”. 이統籍은 1765년 戶籍 中草를 등사한 것이다. 제주도 호적중초와 통적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건태, 앞의 글 참조.

27) 손병규, 「호적대장의 職役記載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1, 2001.

해 19세기 제주도 호구정책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사계리 호적에 등재된 구수는 1894년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그 해의 구수는 1798년 대비 347% 정도 증가한 938명이다. 1894년 다음으로 구수가 많은 해는 1891년이며, 그 해의 구수는 1798년 대비 345% 정도 증가한 932명이다. 두 호적의 인구파악율을 동시기 전국 인구파악율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의문에 답하기 위해 1921년 인구수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1921년 민적부에 기재된 사계리 주민은 1,964명이다. 따라서 1921년 인구대비 1894년 호적 구수는 47.8%, 1891년 호적 구수는 45.5%에 해당한다. 한편 1891년 정부가 파악한 구수는 6,633,166명이고, 1921년 전국 인구는 17,069,858명이다. 따라서 1891년 호적 인구는 1921년 인구의 38.9%에 해당한다. 1921년 대비 1891년 인구비율이 사계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²⁸⁾

19세기 제주도 호적은 직역자를 철저히 파악했기²⁹⁾ 때문에 호적을 통해 민의 계층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제주도 호적에는 육지 호적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직역이 등장한다. 따라서 직역을 기준으로 호적에 실린 사람들의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직역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직역을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허원영이 정리한 아래의 기준³⁰⁾을 참고했다.

- ① ‘復戶’는 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復戶閑良’의 경우 ‘閑良’으로 취급했다.
- ② ‘校奴’와 ‘官奴’는 비록 직역은 아니지만 ‘奴’로 범주화했다.
- ③ ‘仁順府奴格軍’과 같이 ‘奴’가 직역을 가지더라도 ‘奴’로 범주화했다.
- ④ 실질적인 직역을 우선하였다. 예컨대 ‘通德郎院生’의 경우 ‘院生’을 직역으로 간주했다.

28) 김건태, 앞의 글.

29) 김건태,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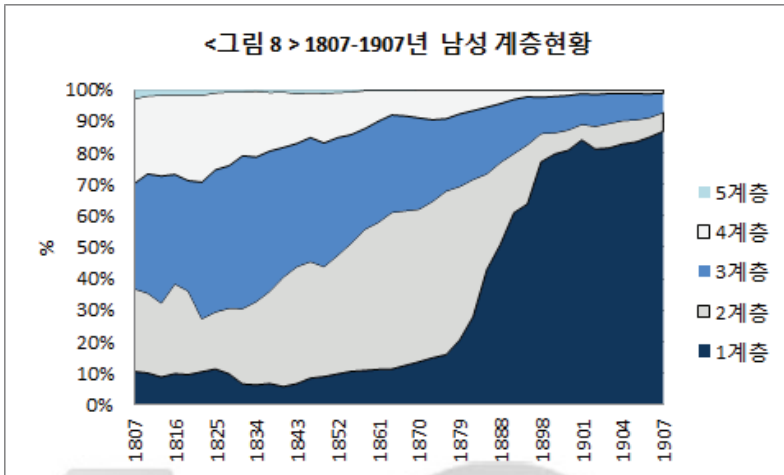
30) 허원영,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 ⑤ ‘出身’, ‘武科出身’, ‘武科及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직역명이 상이하더라도 같은 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 직역으로 처리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하모슬리 호적에 등장하는 직역자를 11개 부류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5계층으로 범주화했다.(<표 1> 참조)

<표 1> 직역별 계층 분류 현황

계층	성격 분류	직역
1계층	幼學類	鄕校나 書院의 직책인 掌議, 齋長 등. 향직에 해당하는 別監, 座首. 儒學을 業으로 하는 幼學, 儒生. 유학과 비슷한 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都訓長, 靑衿, 參奉 등.
	기타	中央軍制의 軍官에 해당하는 御營哨官
2계층	校生類	校生, 院生, 廟生, 品官
	武科關聯	武科出身. 그와 유사한 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業武, 閑良 등.
3계층	軍官職	濟州 東伍軍 관련 軍官職 소지자. 그와 유사한 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長官, 千摠, 把摠, 城將, 平役軍官, 執事, 巡將 등.
	假率	假率
	鄕吏職	戶長, 貢生, 鄕吏
4계층	下級胥吏, 官廳直	관청 또는 향교의 말단 업무를 담당하는 作吏, 記官, 使令, 書記, 書員. 果直, 軍器職, 書堂職 등 각 처의 直.
	軍兵	羅將, 募軍, 防軍, 烽軍, 束伍, 牙兵, 烟軍, 正兵, 直軍, 平役軍 등.
	下層良人	고역에 해당하는 畚漢, 老漢, 牧子, 良人, 鐵匠 등
5계층	奴	寺奴, 官奴, 校奴, 私奴



비고 : 호적에 등재된 연인원 23,914명 가운데 직역 무기재자 1,568명(전체의 6.6%)은 계산에서 제외함.

1807~1907년 사이 두 마을 남성의 계층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그림 8> 참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노비 해방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마을에는 19세기 중엽까지 소수의 관노비들이 살고 있었다. 둘째, 3·4계층은 서서히 감소한다. 셋째, 2계층은 1870년대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1880년대부터 급속히 감소한다. 넷째, 1879년부터 약 20년 동안 1계층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짧은 시간에 幼學類들이 급증하는 모습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전체 직역자 가운데 유학류 비율은 1678년 11.2%, 1717년 19.0%, 1759년 28.4%, 1786년 36.9%, 1828년 42.5%, 1864년 61.4%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한다.³¹⁾ 이렇듯 정부는 1870년대까지 제주도의 직역자를 파악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정책은 19세기 제주도 부세제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세기 제주도에서는 육지와 달리 부세 가운데 전결세가 차지하는

31) 손병규, 앞의 글.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호구에 부과하는 환곡, 군역[平役米], 진상, 공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³²⁾

2) 공노비 후손들의 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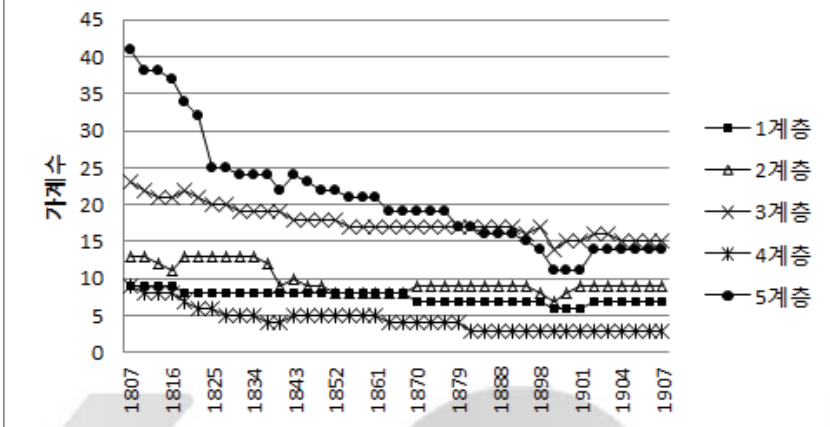
이미 보았듯이 두 마을 호적에는 모두 577가계가 등장하는데, 편의상 각 가계의 첫 번째 인물을 ‘中始祖’로 정의하기로 한다. 공노비 해방령이 내려진 이후 公奴婢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공노비 후손이라는 딱지는 언제쯤 떨어졌을까? 바로일까 아니면 한참 후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公奴를 중시조로 둔 사람과 양인을 중시조로 둔 사람의 직역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두 마을 호적에 등장하는 577가계 가운데 122가계의 중시조가 18세기에 출현하였다. 122개 가계 가운데 일부는 이미 18세기 호적에서 사라진다. 1807년 호적에서 중시조가 18세기에 출현한 가계는 모두 95개이다. 이들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가계가 100년 후 호적에서 확인된다. 19세기 두 마을의 가계 존속율이 육지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825년 단성현 법물야면 호적에 등재된 567개 가계 가운데 1882년 호적에서 확인되는 가계는 고작 59개(전체의 10%)에 불과하다.³³⁾ 그러데 두 마을의 가계 존속율이 모든 계층에서 높았던 것이 아니다. 公奴 가계의 존속율은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公奴[5계층] 가계는 1807년에 41개나 등장하지만 1907년 호적에는 14호만(전체의 34.1%) 보일뿐이다.(〈그림 9〉 참조) 여타 계층은 공노에 비해 가계 존속율이 더 높았다. 특히 1계층의 경우 9가계 가운데 무려 7가계가 100년 동안 유지되었다. 이같이 중시조의 계층과 가계존속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32) 허원영, 앞의 글.

33) 이영훈·조영준, 「18-19세기 농가의 가계계승의 추이」, 『경제사학』 39, 2005.

<그림 9> 18세기 출현 가계의 존속 현황



우리는 두 마을 호적에서 공노의 가계 단절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호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1822년 호적에 등장한 공노 32개 가계 가운데 무려 7개 가계(전체의 21.9%)가 1825년 호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 사라진 가계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남성이 없어 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고, 가계가 존속되지만 다른 마을로 이사 가거나 잠시 호적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계리에 거주하던 金成順은 아들을 두지 못해 그 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1822년 77세였던 그는 처, 외손녀와 함께 호를 구성하고 있었다.³⁴⁾

사계리에 거주하던 姜道昌 후손은 1725년부터 잠시 호적에서 빠져있었다. 1822년 64세였던 강도창은 부인, 43세였던 아들과 호를 구성하고 있었다.³⁵⁾ 이들은 1825년 호적에서 사라지지만 1837년 호적에서 강도창의 손자 申祿이 金德弼의 외손자로 등장하고,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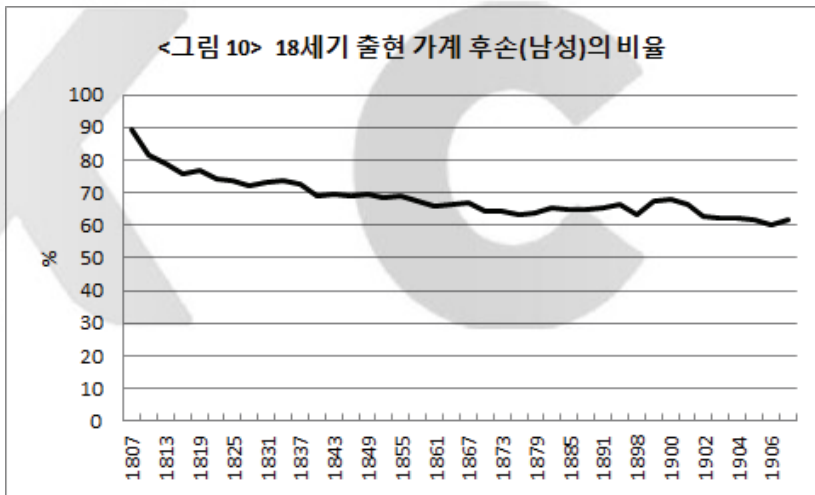
34) 1822년 사계리[今勿路里] 호적, 4통 4호.

35) 1822년 사계리[今勿路里] 호적, 14통 4호.

36) 1837년 사계리[今勿路里] 호적, 14통 4호.

1843년 호적에서 도창의 또 다른 아들인 신록의 父 姜明集이 주호로 등장한다.³⁷⁾

하모슬리에 거주하던 秋日成 가족은 다른 마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822년 44세였던 그는 어머니, 40세와 37세 된 동생 두 명, 借入 두 명과 호를 구성하고 있었다.³⁸⁾ 이들은 1725년 호적부터 자취를 감추고 만다. 3형제가 3년 사이에 모두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3형제 가운데 가계를 계승할 아들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종놈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다른 마을로 옮겨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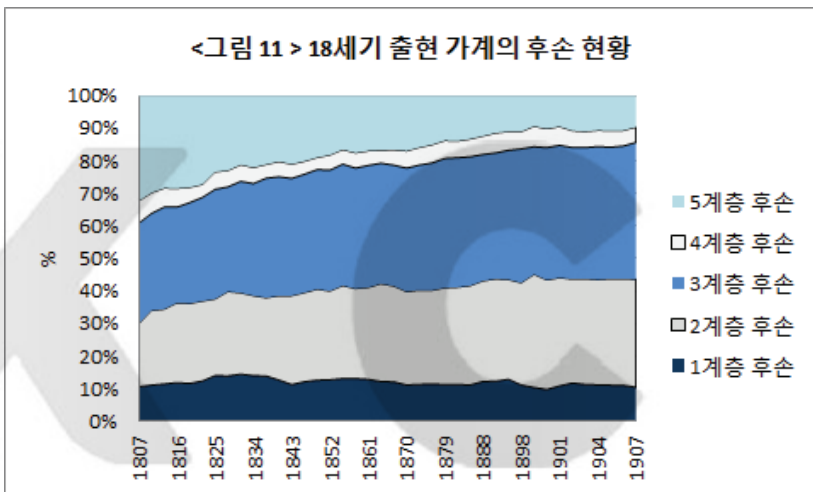
비고 : 시조가 19세기 호적에 등장하면 분석대상에 포함함.

가계가 단절된 자리는 새로운 가계에 의해 채워졌다. 1807~1907년 두 마을 호적에는 새로운 가계가 다수 등장한다. 그 결과 18세기에 출현한 가계 수는 두 마을 호적에 등장하는 전체 가계의 21.1%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가계의 후손 수는 호적에 등장하는

37) 1843년 사계리[今勿路里] 호적, 4통 3호.

38) 1822년 하모슬리 호적, 3통 3호.

인물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8세기에 출현한 가계의 후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7년 호적에서 89.3%였다.(<그림 10> 참조) 그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낮아지지만 20세기 초반에도 대체로 60%를 약간 상회한다. 주민의 정착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공노비 해방령 이전의 기억이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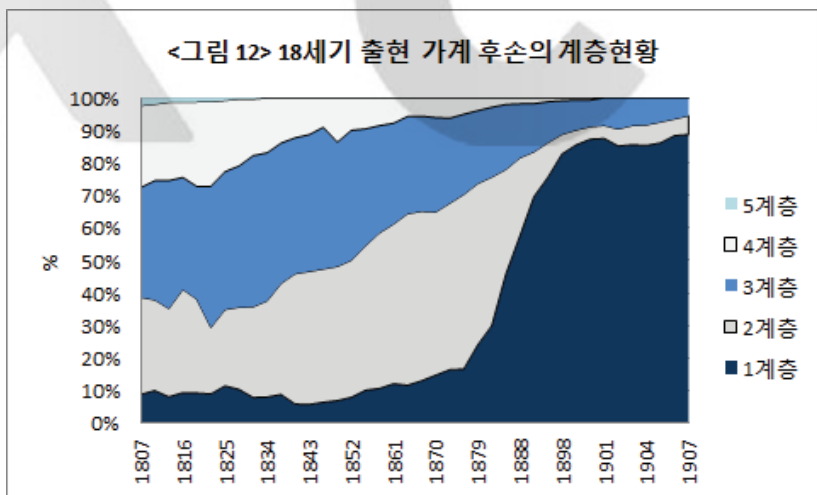
비고 : 1) 중시조가 19세기 호적에 등장하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호적에 등재된 연인원 18,766명 가운데 시조 직역 불명자 277명(전의 1.5%)은 계산에서 제외.

19세기 들어 公奴 가계의 단절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던 만큼 18세기에 출현한 가계의 후손 가운데 공노 후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감소했다. 그 비율은 1807년 32.3%에서 1907년 9.5%로 크게 줄었다.(<그림 11> 참조) 한편 100년 동안 2·3계층 후손 비율이 증가한 데 비해 1계층 후손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1계층 후손의 비율은 1807년 10.6%, 1907년 10.5%였다. 앞의 <그림 9>에서 보았듯이 100

년 사이에 단절된 가계 수는 1계층에 비해 2·3계층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전근대시기 인간의 수명은 영양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2·3계층 후손들의 경제력은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18세기에 출현한 중시조의 계층이 다양했던 만큼 후손들의 계층 또한 여러 가지였다. 그리고 1807~1907년 사이 후손들의 계층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그림 12> 참조) 그런데 그 변화상은 1807~1907년 사이 남성의 계층구조 변화상(앞의 <그림 8>)과 대동소이하다. 즉 1880년대부터 1계층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18세기 출현 가계 후손의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두 그림의 외양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할 바 없다. 이같이 제주도의 경우 직역을 기준으로 본 신분제는 1880년대에 들어 해체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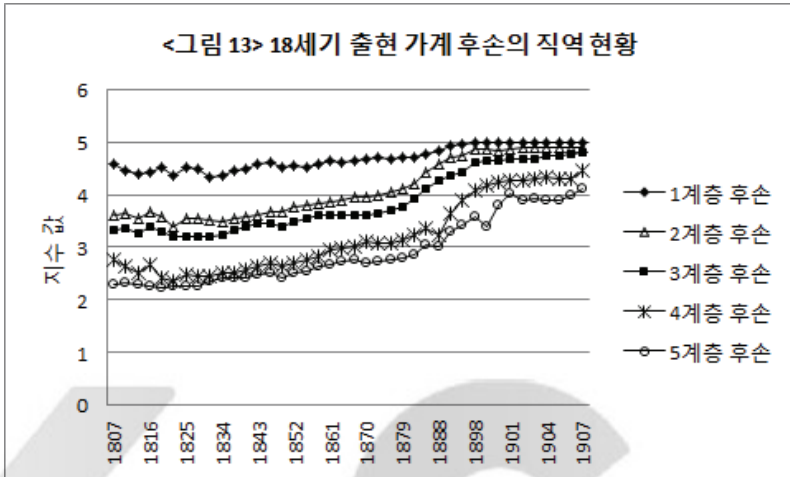
비고 : 1) 시조가 19세기 호적에 등장하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호적에 등재된 연인원 18,766명 가운데 직역 무기재자 1,828명 (전체의 9.4%)은 계산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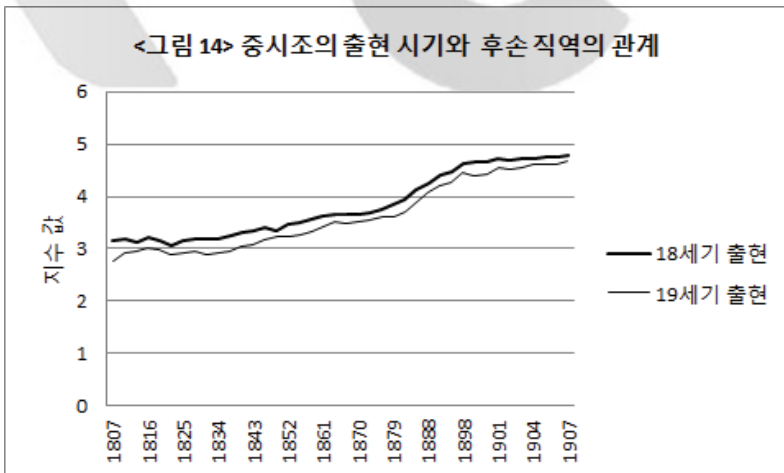
전체 계층구조는 1880년대부터 급격히 변화하지만 개인의 계층구조는 일찍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동일 파시조의 후손이라도 계층이 다른 사례는 이미 1807년 호적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1807년 호적에서 18세기에 출현한 1계층 가계 후손은 모두 36명 등장하는데, 이들은 1계층 24명, 2계층 4명, 3계층 3명, 4계층 1명, 계층불명(직역 무기재) 4명이다. 그리고 동 호적에서 公奴 가계 후손은 모두 87명 확인되는데, 이들은 2계층 7명, 3계층 18명, 4계층 51명, 5계층(校奴, 官奴) 7명, 계층불명 4명이다.

1807년까지도 노비제의 여운이 개인의 계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상의 영향력은 언제까지 미쳤을까? 자식대까지(1825년 경), 손자대까지(1850년 경), 증손자대까지(1875년 경), 고손자대까지(1900년 경), 어디까지였을까? 제주도에서는 1880년대에 들어 신분제가 제도적으로 와해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조상의 영향력이 어느 때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직역을 기준으로 본 개인의 계층을 지수 값으로 치환하였는데, 1계층 5, 2계층 4, 3계층 3, 4계층 1, 5계층 1을 부여하였다. 예컨대 1807년 1계층 후손의 지수값은 평균 $4.6\{(1\text{계층 } 24 \times 5 + 2\text{계층 } 4 \times 4 + 3\text{계층 } 3 \times 3 + 4\text{계층 } 1 \times 2) / 32\}$ 이다. 그리고 공노(5계층) 후손의 지수값은 평균 2.3이다. 지수값은 공노비제가 해체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공노비 후손은 여전히 중놈의 자식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그림 13> 참조) 시간이 흐를수록 하층 후손의 지수값이 더 많이 상승하여 그룹간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1907년까지 위계질서가 굳건히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노비 후손이 1계층에 해당하는 직역을 갖더라도 조상대대로 1계층을 유지해 온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제주도에서는 신분제가 1880년대 들어 제도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별화 될 때는 사람의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만 그것이 집단화 될 때는 문화로 변신하여 오래

도록 후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비고 : 1) 시조가 19세기 호적에 등장하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호적에 등재된 연인원 18766명 가운데 직역 무기재자 1828명 (전체의 9.4%)은 계산에서 제외.



- 비고 : 1) 시조가 19세기 호적에 등장하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시조가 18세기에 출현한 18766명 가운데 직역 무기재자 1828명 (전체의 9.4%)과 시조가 19세기에 출현한 9100명 가운데 직역 무기재자 986명(전체의 10.8%)은 계산에서 제외함.

일부 공노비 후손들은 이웃들의 냉대와 멸시에서 벗어나 보려고 조상대대로 이어오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 그 결과 앞서 보았듯이 공노비 후손들의 가계가 여타 계층에 비해 훨씬 많이 단절되었다. 이사를 간 사람들은 종놈의 자식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을까? 마을을 떠난 공노비 후손들은 조상이 물려준 명예롭지 못한 유산을 청산할 수 있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들과 그들 후손의 등에는 이주민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딱지가 붙었다. 선주민들은 이주민을 늘 멸시하였다. 하모슬리와 사계리 사람들이 출자 불명의 낯선 사람들을 냉대했던 데서 당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18세기에 출현한 가계 후손과 19세기에 출현한 가계 후손의 계층을 지수값으로 치환한 선이 1807년부터 1907년까지 마치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렸다.(그림 14>) 이주민은 선주민을 따라가느라 늘 허덕였던 것이다. 이주민은 100년이 지나도 손에 잡힐 듯 말 듯 앞서가는 선주민을 따라잡지 못했다. 두 마을을 떠나간 사람들의 계층을 미루어 볼 때 두 마을로 이사 온 사람들 가운데는 공노비 후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노비 후손들은 삶의 터전을 바꾸어도 여전히 멸시와 천대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4. 20세기 공노비 후손들의 토지소유

20세기 초 하모슬리와 사계리 마을 주민은 대체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어업을 부업으로 삼았다. 바닷가에서 약 5리(2km) 정도 떨어진 대정현 덕수리를 통해 당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908년 덕수리 호적에 실린 197호 가운데 195호에는 ‘業農’이라고 기재되어있고, 2호에는 ‘業’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³⁹⁾ 조선후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세기 초 하모슬리와 사계리 주민들은 경제

39) 1908년 덕수리 호적은 두 종류가 현존한다. 「隆熙二年 正月 日戌申式 戶籍中草」에는 직업 관련 기록이 없고, 「隆熙二年 十二月 末日戌 戶口調査中草」에 직업 관련 기록이 있다.

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제주도는 농토가 적고 토질마저 척박하여 풍년에도 곡물이 모자랄 정도였다.⁴⁰⁾ 제주도에는 풍년보다 흉년이 더 자주 들었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비가 자주 내렸고, 그 결과 밭곡식이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농사철에 세찬 바람이 자주 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곡물이 피해를 입었다. 어떤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아干旱가 들기도 했다. 흉년이 들면 제주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보내온 진휼곡에 의존해 살아갔다. 18세기 100년 동안 육지에서 제주도로 진휼곡을 이송한 해는 모두 36년으로, 3년마다 1번씩 진휼곡을 이송한 셈이다. 1년 동안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송된 곡물량은 적을 때가 2~3천석, 많을 때는 3만석이 넘기도 했다.⁴¹⁾

19세기에도 흉년이 든 해에는 18세기처럼 육지에서 보내주는 진휼곡을 기다려야 했다. 큰 흉년이 든 1867·1869년에는 제주도 주민의 7할 정도가 진휼곡에 의존해 연명했다. 흉년 든 다음 해인 1852·1868·1870년 봄에 2~3천석의 쌀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송되었다.⁴²⁾ 평상 시 성인 300여 명의 한 끼 식량이 1석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송된 곡물로 많은 사람을 진휼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20세기 초에도 식량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두 마을 주민들은 밭농사를 위주로 하였다. 1913년에 작성된 토지대장은 두 마을의 농지구성 상황을 자세히 전한다. 두 마을 모두 밭이 농지(岱 포함)의 90% 이상을 점한다.(<표3 참조>) 하모슬리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두 마을의 농지 구성은 제주도 서부지역의 여타 마을과 유사하다. 1909년 제주도 서부지역의 농지구성은 논 0.03%, 밭 99.97%이다.⁴⁴⁾

40) 『備邊司謄錄』 숙종 45년 10월 7일.

41) 鄭亨芝, 「조선후기 交濟創의 설치와 운영」, 『梨大史苑』 28, 1995.

42) 姜昌龍, 「朝鮮後期 濟州 還穀制의 運營實態」,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43) 18-19세기 제주도 진휼에 관한 내용은 김건태, 앞의 글 참조.

4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09.

<표 3> 1913년 전답현황

(단위; 평)

전답 마을	畓 (%)	田 (%)	岱 (%)	합계
하모슬리	3,577 (0.4)	868,599 (94.5)	47,021 (5.1)	919,197
사계리	77,372 (5.0)	1,434,412 (91.8)	49,990 (3.2)	1,561,774
합계	80,949 (3.3)	2,303,011 (92.8)	97,011 (3.9)	2,480,971

<표 4> 1918년 제주도 두 마을과 경상도 안동 천전리 주민의 토지소유현황

(단위; 정보)

마을 규모	하모슬리, 사계리				천전리			
	호		토지		호		토지	
10 이상	2	(0.3)	22.7	(2.3)	2	(1.3)	30.3	(17.8)
5~10	24	(3.9)	159.0	(16.0)	3	(2.0)	21.9	(12.9)
3~5	81	(13.3)	303.1	(30.5)	14	(9.3)	54.1	(31.8)
2~3	90	(14.8)	223.5	(22.5)	9	(6.0)	21.8	(12.8)
1~2	143	(23.4)	208.0	(20.9)	22	(14.7)	32.4	(19.1)
0.5~1	80	(13.1)	61.5	(6.2)	6	(4.0)	4.7	(2.8)
0.5 미만	83	(13.6)	16.4	(1.6)	23	(15.3)	4.8	(2.8)
무토지	107	(17.5)	0	(0)	70	(46.7)		
합계	610	(100)	994.0	100	150	(100)	169.9	(100)

비고; 지세명기장 1918년, 하모슬리 민적 1915년, 천전리 민적 1919년, 사계리 민적 1921년 상황.

밭이 많은 제주도의 농업환경은 지주제 발달을 저해했다. 일반적으로 밭의 소득은 논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제주도는 토질마저 척박하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밭이 가지는 부가가치는 매우 낮았다. 그 결과 지주제의 발달 수준이 육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한 사실은 제주도 두 마을 주민의 1918년 토지소유 상황과 조선후기 이래 유명한 동성촌락 가운데 하나였던 경상도 안동 천전리 주민의 1918년 토지소유상황을⁴⁵⁾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표4> 참조) 10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전리가 17.8%, 제주도는 2.3%이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려 8배 가까이 높다. 그리고 무토지 농민의 비중은 천전리가 46.7%, 제주도가 17.5%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천전리에서 토지소유분해가 더욱 격심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상이 이렇다고 해서 두 마을 농민이 천전리 농민에 비해 더 수준 높은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두 마을의 영농여건이 천전리에 비해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이다. 농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천전리가 43.7%인데 비해 두 마을은 3.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도 두 마을의 밭은 육지의 밭에 비해 토질도 척박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 두 마을 주민들이 천전리 주민들보다 더 가난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제주도 주민들은 거친 자연과 싸워가면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 1918년 당시 26호는 5정보를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상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26호 가운데 18호의 중시조는 18세기에 출현하는데, 그들은 1계층(4호), 2계층(7호), 3계층(5호), 4계층(2호)이었다. 한편 어려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조상 때의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1918년 당시 190호는 소유농지가 0.5정보도 되지 않아 매우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의 중시조 계층은 다양했다. 190호 가운데 64호의 중시조는 18세기에 출현하였는데, 그들은 1계층(6호), 2계층(23호), 3계층(29호), 4계층(3호), 5계층(3호)이었다.

45) 천전리 상황에 관한 내용은 金建泰, 「독립·사회운동이 傳統 同姓村落에 미친 영향」, 『大東文化研究』 54, 2006. 참조.

<표 5> 20세기 전반 18세기 출현 가계 후손의 인구 및 토지 현황
(토지구모; 평)

인구, 토지 중시조계층	호수	인수	호당 인원	소유 토지	1호당 토지 소유	1인당 토지 소유
1	38	252	6.6	291,098	7660.5	1155.2
2	103	604	5.9	651,119	6321.5	1078.0
3	120	706	5.9	668,608	5571.7	947.0
4	14	91	6.5	82,864	5918.9	910.6
5	31	163	5.3	177,728	5733.2	1090.4
불명	2	9	4.5	6,534	3267.0	726.0
합계	308	1825	5.9	1,877,951	6097.2	1029.0

비고 : 지세명기장 1918년, 하모슬리 민적 1915년, 사계리 민적 1921년 상황.

<표 6> 20세기 전반 호수, 인구 및 토지소유 규모
(토지구모; 평)

인구, 토지 출현시기	戶數	人數	호당 인원	소유 토지	1호당 토지 소유	1인당 토지 소유
18세기	308	1825	5.9	1877951	6097.2	1029.0
19세기 전반	116	711	6.1	617762	5325.5	868.9
19세기 후반	58	339	5.8	245905	4239.7	725.4
20세기	22	137	6.2	81003	3682.0	591.3
미확인	106	485	4.6	159256	1502.4	328.4
합계	610	3497	5.7	2981877	4888.3	852.7

비고 : 지세명기장 1918년, 하모슬리 민적 1915년, 사계리 민적은 1921년 상황.

가난한 사람 가운데 1계층 후손도 있었지만 대체로 공노비 후손이 1계층 후손에 비해 못 살았다. 1918년 두 마을에 거주하던 610호 가운데 308호의 가계가 18세기까지 연결된다. 1918년 당시 호당 토지소유 규모는 1계층, 2계층, 4계층, 5계층, 3계층 순이다. (<표 5>) 그리고 1인당 토지소유 규모는 1계층, 5계층, 2계층, 3계

층, 4계층 순이다. 이렇듯 100년 이상 두 마을에 거주한 가계만 놓고 보면 공노비 후손들의 경제력은 1계층 후손에 비해서는 적지 않게 뒤지지만 2·3·4계층 후손과는 엇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염두에 둘 사실이 있다. 공노비 해방령 이후 마을을 떠난 가계 후손들의 경제력이 (<표 5>)에 반영되지 않았다.

19세기 들어 많은 공노비 후손들이 마을을 떠났다. 1807년과 1907년 가계현황을 살펴보면 1계층은 9 → 7, 2계층 13 → 9, 3계층 23 → 15, 4계층 9 → 3, 5계층 41 → 14로 감소한다. 우리는 마을을 떠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는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두 마을 호적에 등장하는 가계를 통해 마을을 떠난 가계의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두 마을에 거주한 햇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소유토지가 많았다.(<표 6> 참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마을을 떠난 공노비 후손들은 1918년 당시 대체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공노비 후손들은 양인 후손들에 비해 대체로 어렵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18세기 제주도 사람들은 거친 자연에 맞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슴프레 여명이 밝아오면 메마른 밭으로 나가 땅거미가 질 때까지 농사지어도 양식이 모자라기 일쑤였다. 그런 해에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곡식을 가득 실은 육지 배가 포구로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민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왕실의 종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것이다. 그들은 솔뚜껑만한 전복을 따서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하던 밭일도 멈추고 바다로 나가 자맥질해야 했다.

제주의 良人들도 정부의 정책에 놀아나 공노비를 한없이 천하게 여겼다. 양인들은 웬만해서는 노비와 결혼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노비들은 끼리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목

사는 간교한 향리들을 시켜 군대에 가면 免賤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감언이설로 그들을 꾀었다. 순진한 사내중들은 향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 그런데 곧 면천의 소식이 내려올 것이라고 떠들어 대던 목사는 소리 소문 없이 서울로 떠나고 말았다. 새로운 목사에게 자초지종을 아뢰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땀다. 다시 군에 가면 이번에는 자기가 힘써보겠다고 했다. 그래 또 신임 목사를 믿었다. 그러기를 셀 수 없이 반복했다.

동남풍이 살랑살랑 불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잔잔히 이는 파도에 부서지던 어느 날 지평 선 너머에서 나타난 조그만 배가 미끄러지듯 포구로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사람이 목사가 있는 곳으로 재빠르게 달려갔다. 조금 있다가 목사가 나와 공노비들을 뜰 앞에 모아놓고 으스댔다. 자신이 힘써 공노비 너희들이 면천되었다고. 공노비들은 연신 몸을 굽혀 감사인사를 한 뒤 마을로 돌아와 문서를 보관하는 서동궐에 고이 모셔놓았던 호적을 꺼내 奴婢 두 글자를 붓으로 지웠다. 그래도 奴婢 두 글자의 흔적이 보였다. 그래서 그해 호적을 새로 만들었다.

기쁨은 잠시 뿐이었다. 또 다른 명예가 그들에게 씌워졌다. 공노비들은 양인이 되었지만 하던 일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牧子와 같이 굷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얹잡아 보았다. 그러자 하층 양인들도 덩달아 노비 후손들을 멸시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제주에는 身良役賤層을 천대하는 문화가 맹위를 떨쳤다. 정부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는 데 한 몫 거들었다. 정부는 1870년대까지도 소수만 군역에서 면제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특권층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인식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정부가 1880년대 이후부터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혔을 때도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점검했다. 공노비 후손들은 20세기 초까

지도 종놈의 후손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살았던 것이다. 한편 적지 않은 공노비 후손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을 떠나 멀리서와 천대가 없는 세상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그런 곳은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뿌리 없는 자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적 멀리서와 천대는 공노비 후손들을 위축시켰다. 조상이 물려준 땅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와 천대를 참아가면서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농사지어 많은 토지를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곳에서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근본 없는 놈이라는 손가락질에 더하여 생활고까지 겹쳤다. 이같이 공노비 해방령이 내려진 지 100년이 넘도록 그 후손들은 종놈의 자식이라고 천대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참고문헌

- 濟州道 下幕瑟里, 戶籍, 民籍, 地稅名寄帳.
 濟州道 沙溪里, 戶籍, 民籍, 地稅名寄帳.
 濟州道 日果里, 戶籍.
 濟州道 東城里, 戶籍.
 濟州道 中門里, 戶籍.
 『耽羅職方說』.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09.
- 姜昌龍, 「朝鮮後期 濟州 還穀制의 運營實態」,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4.
 金建泰, 「독립·사회운동이 傳統 同姓村落에 미친 영향」, 『大東文化研究』 54, 2006.
 ———, 「조선후기 호구정책과 문중형성의 관계 - 제주도 대정현 하모리 사례 -」, 『한국문화』 67, 2014.
 김경란, 「조선후기 無姓層의 有姓化 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2008.
 金東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 『역사민속학』 24, 2007.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형태」, 『耽羅文化』 32, 2008.
 김수희,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형태」, 『耽羅文化』 33, 2008.
 朴贊植,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耽羅文化』, 16, 1996.
 白承鍾, 「慶尙道 丹城縣 都山面 文太里의 私奴 興宗과 興龍 一家」, 『震檀學報』 70, 1990.
 손병규, 「호적대장의 職役記載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1, 2001.
- 李榮薰, 「한국사에 있어서 奴婢制의 추이와 성격」, 『노비·농노·노예』 역사학회 편, 일조각, 1998.
 이영훈·조영준, 「18-19세기 농가의 가계계승의 추이」, 『경제사학』 39, 2005.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 「노비의 저항과 해방」, 『역사비평』 34, 1996.
 ———, 「한국 奴婢의 존재형태」, 『노비·농노·노예』 역사학회 편, 일조각, 1998.
 鄭亨芝, 「조선후기 交濟創의 설치와 운영」, 『梨大史苑』 28, 1995.
 池承鐘, 『朝鮮前期 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95.
 허원영,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Living of the Descendents of the Public Nobi in
the Nineteenth Century Korea**

KIM, Kuentae*

This researcher intends to examine people living in Hamo village and Sagye village in Jeju island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1910s. Based on the literal translation written in household register, status of residents can be divided into 5 statuses as follows.

- 1 status; Status of students preparing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people with social status similar to them.
- 2 status; Status of students preparing military examination and people with social status similar to them.
- 3 status; Status of military troop's commander and people with social status similar to them.
- 4 status; Status of military soldiers and people with social status similar to them.
- 5 status; Nobi.

People and ancestor's statuses, living in two villages in the 19th century, were different each other in many cases. In 1 status, descendants didn't success the status of ancestor automatically. There were a few descendants who were dropped to the status lower than ancestor. In 2 status, descendants didn't ancestor's occupation automatically. In 2 status, there were a few descendants who were dropped to the status lower than ancestor. In front of 3 status, there was always a ladder of status increase, which was strong. In 3 status, there were more descendants who were improved to the status higher than ancestor, than descendants who were succeeded occupation of ancestor thoroughly in the 19th century. In 4 status, there were more descendants who were improved to the status higher than ancestor, than descendants who were succeeded occupation of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cestor thoroughly in the 19th century. Descendants of 5 status also improved the status in the 19th century. But, status of ancestor made an effect on their descendants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Average status of 1 · 2 · 3 · 4 · 5 statuses' descendants came from behin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In 1918, residents of two villages also owned lots of fields. There were the most land of 1 status' descendants and the least land of 5 status' descendants. But, land owned scale per a family showed close correlations with the period when ancestor was appeared in family register. In other words, ancestors of families appeared in the 18th century had the widest land and descendants of family appeared in the 20th century had the least land.

〈Key words〉 : Jeju Island, Household Register, Descendant, Ancestor, Status

접수일: 2015.09.30, 심사일: 2015.10.30, 게재확정일: 2015.11.06